

# ‘고려인 역사마을 1번지’ 사업 탄력

### 광산구 ‘세계 고려인 대회’ 성황 55만 고려인 연합회 역사적 첫발 도시재생, 관광·경제 활성화 도모

광산구가 전 세계 55만 고려인 화합의 장인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고려인 역사 마을 1번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세계 고려인 대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서울시와 경기도 등 국내외 고려인 단체·기관 관계자, 역사유물 전문가 400여 명이 광주를 찾았다.

광산구는 지난 19일 고려인마을과 호남대 등에서 한국과 고려인을 뜻하는 ‘K’의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포럼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고, 광산구의 외국인 주민 정책을 알리는 정책소풍,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평화선언 등 다양한 국제교류행사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이하 고려인총연)’ 출범식이었다.

고려인총연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전 세계 흠어져 있는 모든 고려인을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려인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행동과 연대, 그리고 역사를 기억·계승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 교육 등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사실상 고려인마을을 품은 광산구가 세계 고려인의 중심지라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광산구에서 추진 중인 ‘K-디아스포라’를 대표하는 역사 마을 1번지 사업을 이룰 동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선 8기 광산구는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 주민과를 신설하고, 고려인 역사와 문화를 활용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일대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앞서 고려인 역사유물 1만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월곡 고려인문화관을 개관하고 흥분도 장군 흉상 및 기념 공간 등을 조성한 결과, 고려인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 총 200여억원이 투입되는 월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지난 19일 열린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에 참석해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 등을 축하하고 있다.

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주 축으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광산구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세계 고려인 대회는 이 같은 사업 방향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연구자의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민, 임한이 고려인문화연구소 연구원과 윤경미 고려인콘텐츠사업단장은 이번 국제학술포럼에서 “고려인마을을 거점으로 한민족 정체성을 인식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경험한 다문화 공유하는 노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아시아 테마 관광지구 조성 등 공공사업으로 확장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고려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와 더불어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류 활성화 흐름에 맞춰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교류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하고, 문화예술 교류부터 비즈니스, 고려인 국내 정착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할 거점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산구는 현재 다양한 분야 전문가, 고려인마을 주민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하고 ‘고려인 역사마을 1번지’ 종합 로드맵 수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글로벌 고려인상단’, ‘아시아 푸드 스트리트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고려인마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생, 삶의 질 향상과 나눔 하우스, 커뮤니티센터,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는 광산구 고려인마을이 모두가 상생하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광주 특유의 공동체 정신으로 일군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인마을과 광산을 최고의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금 79억여원 결정

### 공항·사격장 인근 2만8218명 대상...5월말까지 개별 통지

광주 광산구는 “올해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6일 ‘2023년 제1회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시민 2만8218명을 대상으로 79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광주 군 공항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동 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내 거주민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시민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광산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 신청을 하면된다.

2023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하며, 신청기한(2월 말) 내에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4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평등한 동행, 모두에 이로운 여성친화도시로

### 광산구,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



광주 광산구는 지난 22일 ‘평등한 동행, 모두에 이로운 여성친화도시 광산’ 구현에 힘을 보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발대식에선 지난 4월 공개모집으로 위촉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28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정 발전

을 위한 정책제안,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의견수렴 등 여성친화 정책 추진의 핵심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제5기 시민참여단이 여성 권리 증진, 일상 속 양성 평등 실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안전,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여성친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AI 활용 효율적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 광산구, 과기부-행안부 협업 공모사업 선정 6억원 확보

광주 광산구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부처협업 공모사업인 ‘2023년 과학기술융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서 ‘데이터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혁신’ 과제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분석해 청소 행정을 효율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위치별, 시간별 수거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차량 동선을 최적화하고, 미수거 등이 발생하는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산구는 하루 19대의 청소차량을 투입, 전 지역을 19개 구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나, 구역마다 종량제 봉투가 너무 많이 배출되거나 미처 봉투를 수거하지 못한 곳이 발생하는 등의 각종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미수거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

고 있다. 특히 청소노동자의 차량 발판 탑승 금지로 차량 수거 구간이 조정되면서 2021년 1791건이던 민원수는 2022년 3090건으로 급증했다.

광산구는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의 효율성,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넷비전텔레콤과 함께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 장비를 개발하고, 수거량 데이터 분석 모델과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개발한 장비와 시스템을 올 하반기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 적용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청소노동자에게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주요 역할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 국가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의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해선 표창, 포상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안전교육 및 문화 운동 추진, 감염병 대응,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대응체

계 유지 등 ‘예방과 대응 분야’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난 예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